

성취도별 분할 점수

학생의 성취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점수.

몇점 이상이어야 A를 받을까?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고교에서는 학생의 학업 수준에 따라 5단계(A·B·C·D·E) 혹은 3단계(A·B·C)의 '성취도'를 부여합니다. 5단계 평가에서 90% 이상을 성취하면 'A', 80% 이상~90% 미만을 성취하면 'B'를 받습니다. 이때 성취도를 나누는 기준이 된 90% 80% 등의 수치를 '기준 성취율'이라고 하고, 이를 점수로 구체화한 것을 '분할 점수'라고 합니다. 분할 점수는 고정 분할 점수와 추정 분할 점수로 나뉩니다. 고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면 기준 성취율과 분할 점수가 동일합니다. 90점 이상을 받으면 성취율도 90% 이상이라고 보고 성취도 'A'를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80점 이상~90점 미만을 받으면 성취도 'B'가 됩니다.

한데 과목 내용이 어렵거나 시험이 까다롭게 출제되면, 90% 이상을 성취한 학생도 시험 점수는 90점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면 학생들의 성취도가 지나치게 낮아집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과의 특성, 시험의 난도 등을 고려해 추정한 분할 점수를 '추정 분할 점수'라고 합니다.

추정 분할 점수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추정 분할 점수는 해당 과목의 수업을 한 모든 교사가 참여해 결정합니다. 먼저 각 기준 성취율에 '가까스로' 도달한 학생의 특성을 합의하고, 시험 문항의 유형과 난도 등을 고려해 해당 학생의 정답률을 추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이스(NEIS)에 탑재된 산출 절차를 활용해 적절한 추정 분할 점수를 구합니다. 확정된 추정 분할 점수는 평가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합니다.

시험 전에 공개된 추정 분할 점수로 시험 수준을 예상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전에는 성취도 A의 분할 점수가 90점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75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는 75점만 넘어도 성취도 A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시험에서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